

외로운 '영화 범죄도시3'... '할리우드 대작' 싹쓸어버릴까

'범죄도시3' 31일 공개... 할리우드와 경쟁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4편 앞뒤로 포진해 업계 "그래도 '범죄도시3' 흥행 성공" 전망 스크린 나눠 갖고 관객 분산 어쩔 수 없어 "전작만큼 흥행하기 어렵다" 예상도 있어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형사 마석도는 주역 한 방으로 약당을 제압한다. 아무리 많은 적을 만나도 끄떡없다. 주먹 몇 번만 휘두르면 모두 나가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마석도가 이번엔 정말이지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할 판이다. 영화 '범죄도시3'는 극장가 여름 성수기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할리우드 대작에 포위된 채 경쟁해야 한다. 마치 장판파를 지키던 장비의 처지다. 마석도가 물러쳐야 할 적은 만만치 않다. 슈퍼카 군단과 인어공주 그리고 DC 슈퍼히어로들과 인디애나 존스. 하나 같이 거물이다. 이번에도 마석도의 원천지가 통할 수 있을까.

◇장판파를 지키는 장비

'범죄도시3'는 오는 31일 공개된다. 이 영화 개봉 2주 전에 '분노의 질주:라이드 오어 다이'가, 일주일 전엔 '인어공주'가 출격한다. 다음 달엔 DC 슈퍼히어로 영화 '플래시'와 이제는 클래식인 영화 '인디애나 존스:운명의 다이얼'이 관객을 만난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2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2편을 더 상대해야 하는 형국이

다. 문제는 '범죄도시3'와 경쟁하는 이 미국 영화 4편 중 만만한 상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일단 '분노의 질주'는 설명이 필요 없는 액션영화 시리즈. 2001-2021년 9편의 영화로 66억1600만 달러(약 8조8540억원)를 벌어들였다. 코로나 사태가 절정이던 2021년 5월에 나온 9번째 영화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가 229만명을 불러모을 정도 국내에도 고정 팬을 확보해냈다. '라이드 오어 다이'는 10번째 작품으로, 할리우드에서도 최고 수준인 제작비 약 3억4000만 달러를 쓴 슈퍼 블록버스터다. 국내 멀티플렉스 업체 관계자는 "영화관에서 볼 만한 영화만 극장에서 보는 최근 관객 성향과 잘 맞아떨어지는 작품"이라고 했다. '인어공주'는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화 중 하나다. 1989년에 처음 공개된 뒤 이제는 고전이 된 동명 장편 애니메이션이 원작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도 가장 팬이 많고 각별한 지지를 받는 '인어공주'가 실사화 됐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고, 지난 9일 열린 미국 현지 시사회 이후 나온 평가 역시 나쁘지 않아

국내에서도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

◇슈퍼카, 인어공주, 슈퍼히어로, 인디애나 존스

6월에 공개 예정인 '플래시'와 '인디애나 존스:운명의 다이얼'은 젊은 관객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끌어들이 수 있는 요소를 갖췄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플래시'는 광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슈퍼히어로 플래시가 주인공인 첫 번째 영화. 이 작품 역시 마블처럼 멀티버스(multiverse·다중우주) 세계관을 가져오며 팀 버튼 감독이 만든 '배트맨' 시리즈의 배트맨을 소환한다. 그 배트맨을 연기하는 건 당연히 마이클 키튼이다. 마블에 세네 걸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DC이지만, 이번 작품만큼은 다를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 현지에서 '플래시'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소문이 돌고, 배우 톰 클루즈가 이 영화를 극찬했다는 말도 있다.

'인디애나 존스:운명의 다이얼'은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이어온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의 5번째 영화다. 1942년 생으로 81세인 해리스 포드가 다시 한 번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인디애나 존스로 돌아온다. 80대가 돼서도 위험천만한 모험을 즐기는 인디애나 존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첨단 특수 효과를 통해 40대로 되살아난 인디애나 존스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 그때 그 시절 인디애나 존스를 동경했던 중장년층 관객까지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건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이다. 배급사 관계자는 "당연히 볼거리 면에서 보면 할리우드 영화들이 더 낫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도 마석도

이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업계는 그래도 '범죄도시3'가 이들 영화 5편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큰 흥행을 통해 관객 사이에선 필립(必覽) 영화로 자리를 잡은데다가 배우 마동석을 내세운 화끈한 액션이 아직까지는 신선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공개된 한국영화 중 100만을 넘긴 작품이 2편 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영화계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극장에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한국영화를 기다려온 관객의 욕구 불만을 채워줄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하다.

다만 사실상 무주공산이던 극장가를 점수했던 '범죄도시2' 때와는 상황이 달라 전작만큼 흥행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보기도 한다.

'범죄도시2'는 영화관 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직후였던 지난해 5월 중순 관객을 만났다. 다른 한국영화들이 눈치 싸움을 하며 개봉일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범죄도시2'는 개봉을 전격 확정했고 이렇다 할 경쟁자를 만나지 않고 흥행에 성공했다. 당시 업계에선 "개봉일을 정한 이들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범죄도시3'는 경쟁작이 즐비한 상황을 견뎌야 한다. 스크린을 나눠가져야 하고, 관객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영화계 관계자는 "올라간 티켓 가격이 영화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주 볼 만한 신작이 나오면 관객은 결국 반드시 극장에서 볼 영화를 선택할 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범죄도시3'를 선택하지 않을 관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가오갤3' 2주 연속 주말 1위...다 왔다 300만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Volume 3'(이하 '가오갤3')가 개봉 2주차 주말 7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다. 현재 추세라면 무난히 300만 관객 고지를 밟을 거로 전망된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200만 관객을 넘어섰다. '가오갤3'는 12~14일 71만1851명(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272만5942명이다. 이 흥행 세라핀 '가오갤3'는 300만 관객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오전 7시20분 현재 '가오갤3' 예매 관객수(4만3255명)는 '분노의 질주:라이드 오어 다이'(8만8364명)에 뒤져있지만, 누적 300만명을 넘어서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2014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017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2'에 이어 '가오갤' 시리즈 세 번째 영화다. 우주를 지키는 괴짜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크리스 프랫, 조이 스타다, 캐빈 길런, 폼 클레멘티프, 데

이브 바티스타, 윌 풀터 등이 출연했다. 빈 디젤과 브래들리 쿠퍼는 목소리 연기를 했다. 연출과 각본은 전작 두 편에 이어 다시 한 번 제임스 건 감독이 맡았다. '가오갤3'는 이 시리즈 마지막 영화이기도 하다. 애니메이션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같은 기간 19만8354명을 추가해 200만 관객을 넘겼다(206만2685명).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2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포함 '스즈메의 문단속'(538만명), '더 퍼스트 슬램덩크'(464만명), '가오갤3'(272만명) 등 4편이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일본 닌텐도가 1985년부터 내놓은 비디오 게임 '슈퍼 마리오' 시리즈를 영화화했다. 미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일루미네이션이 닌텐도와 합작했으며, 애런 호바스·마이클 제레니키 연출했다. 영화는 뉴욕의 배관공 형제 마리오와 루이지가 배수관 고장으로 위기에 빠진 도시를 구하려다가 미스터리한 초록색 파이프 안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기를 그린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스타로드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프랫이 마리오를, 찰리 데이와 마리오의 동생 루이지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안야 테일러조이는 피치 공주 목소리를 연기했다. 이와 함께 잭 블랙, 세스 로건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참여했다.

르세라핌 '언포기븐', '빌보드 200' 6위...K팝 걸그룹 최단기간 톱10

톱10 진입은 블랙핑크·트와이스·에스파·있지 이어 다섯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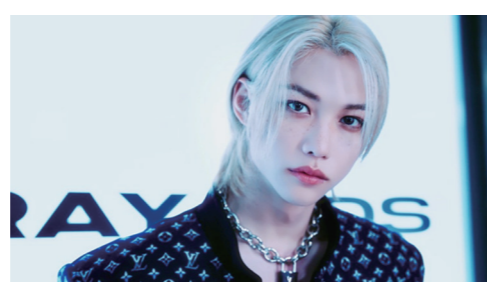


'르세라핌(LE SSERAFIM)'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톱10에 데뷔 이후 가장 최단기간에 진입한 K팝 걸그룹이 됐다.

20일 자 '빌보드 200'에서 6위로 데뷔했다. 데뷔 약 1년 만에 거둔 성과다. 이전 K팝 걸그룹 중 '빌보드 200' 톱10에 가장 빨리 진입한 팀은 '에스파'였다. 데뷔 약 600일 만인 지난해 7월 미니 2집 '걸스'로 3위를 차지했다. 앞서 르세라핌은 전작 '안티프래자일'로 '빌보드 200'에서 14위를 차지하며 데뷔 6개월 만에 해당 차트에 들어왔다. 이번 앨범으로 '블랙핑크'(최고 순위 1위), '트와이스'(최고 순위 2위), '에스파'(최고 순위 3위), '있지'(최고 순위 8위)에 이어 '빌보드 200' 10위 안에 든 다섯 번째 K팝 걸그룹 됐다. 아울러 르세라핌은 K팝 걸그룹 중 두 개의 앨범을 가장 빠른 시간에 '빌보드 200' 톱20에 진입시킨 기록도 썼다. '언포기븐'은 지난 11일까지 북미에서 총 4만5000장 이상이 팔렸다. 피지컬 음반 판매량이 3만8500장,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SEA(streaming equivalent albums)가 6500장이다. 한편, 미국 컨트리 스타 모건 윌렌의 앨범 '월 심 앳 어 타임(One Thing At A Time)'은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해당 차트에서 10주 연속 정상을 올렸다. 영국 스타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정규 5집 '[-](서브트랙트(Subtract))'는 2위로 진입했다.

스트레이 키즈, '죽어보자' 티저 공개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15일 신곡 '죽어보자 (GET LIT)'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 속 멤버들은 검정색과 하얀색 의상을 차려입고 등장, 고조되는 음악에 맞춰 알록달록하게 변신했다. 또 '음악 틀고 놀아 그냥 필(feel)로 / 부쉬버려 킴처럼 꼭대기로 올라 소리 질러라'는 노랫말이 먼저 공개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내달 2일 오후 1시 정규 3집 '파이브스타(★★★★★)'와 타이틀곡 '특'을 발매한다. 수록곡 '죽어보자'는 멤버 한이 작사·작곡을 맡았다. 신보 '파이브스타'에는 타이틀곡 '특'과 수



록곡 '죽어보자'를 포함해 '위인전', '아이템(ITEM)', '슈퍼볼(Super Bowl)', '탑라인(TOPLINE)'(Feat. 타이거 JK), 'DLC', '죽어보자', '충돌', 'FNF', '유티풀(Youtiful)', '더 사운드(THE SOUND)'(Korean Ver.), '타임 아웃(Time Out)'까지 총 12곡이 담겼다.

유키스, 2세대 보이그룹 '귀환 열풍' 합류...5년6개월 만에 신곡

다음달 6인조로 미니앨범 발매

K팝 2세대 그룹 '유키스(UKISS)'가 5년6개월 만에 신곡을 낸다. 데뷔 15주년 프로젝트의 하나다. 유닛이 아닌 팀의 신곡은 지난 2017년 발표한 '널 맞이할 준비' 이후 처음이다. 15일 소속사 탕고뮤직에 따르면, 유키스는 팀을 지키고 있는 수현·훈·기섭을 필두로 데뷔 15주년을 맞아 6인조로 컴백한다. 이달 중 훈·수현이 각각 솔로 싱글을 발매한 뒤 6월에 6인조로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특히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 일본에선 15주년 기념 콘서트도 연다. 7월28일 도쿄 제프 하네다(Zepp Haneda)를 시작으로 30일 오사카 제프 남바에서 각각 2회차 공연한다.

유키스는 2008년 미니 1집 '뉴 제너레이션(New Generation)'으로 데뷔했다. '시끄러!!' '만만하니' 등의 히트곡을 냈다. 멤버들의 탈퇴와 결혼 등으로 활동이 부진하다 2020년 SBS 웹 콘텐츠 '문명특급'의 코너 '숨.등.명'(숨어서 듣는 명곡) 등에서 '시끄러!!'가 재조명되면서 다시 꿈틀거렸다. 2021년엔 수현과 훈이 유닛으로 활동했다. 한편 최근 데뷔 15주년 안팎을 맞은 2세대 K팝 보이그룹이 잇따라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2세대 한 축을 이룬 '인피니트'는 팀 활동을 위한 인피니트 컴퍼니를 설립하고 5년 만에 완전체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향수 뿌리지마'로 알려진 그룹 '틴탑'은 지난 3월 MBC TV 예능물 '놀면 뭐하니?' 출연으로 다시 주목 받은 뒤 기세를 몰아 7월



새 앨범을 내기로 했다. 한류 대표그룹 '사이니'도 지난달 막내 태민이 전역한 걸 발판 삼아 2분간 안에 정규 8집 발매를 예고하고 나섰다.